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마태복음 28:16-20)

오늘 예배를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미디어팀, 찬양팀, 연주자,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박수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데 깨달은 것이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란 걸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제가 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보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면 늘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는 말씀 통해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주엘라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담임목사님께서 주시는 선교 보고를 통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잠깐 포럼을 했었는데, 새로운 현장이 제게 열렸고,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분에게 아주 젊어 보이셔서 60세처럼 보인다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8세라고 대답하셔서 민망해서 형님에게 잘못했다는 농담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생기는 돌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예비 된 영혼이 생명을 받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실패하고, 막히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과 세계 복음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내게 담겼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1.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받은 복음이 같고, 우리는 가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며, 혼란을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우리의 과거는 원죄 속에 빠져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원죄를 짓고, 사탄을 섬기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15에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육신의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로 힘들다 생각이 된다면 이사야 53:5-6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성취해 놓으신 언약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2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사탄과 저주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방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참담한 삶이었습니다. 제 손은 사탄에게 묶여 있었고, 제 눈은 검은 안대로 가려져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11:28이 들리게 하시더니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해방시키시더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19에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13-15이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더니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현장과 업 속에 가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환경과 사람의 말에 눌려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시고, 어려움에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고민되는 사람, 자녀가 고민된다면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시려는 사인입니다.

2. 삶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확인하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축복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Heavenly power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보좌의 권세는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보좌의 권세를 누리면 돌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헌신은 영원의 응답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 받는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받은 마태복음 28:16-20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도 기록했습니다.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누려지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가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답입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전도할 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현장에서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회화 시키고,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먼저 다락방에서 전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놀라지 말라, 교회 오면 거룩한 자도 있고, 은혜 받은 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으나, 구석에서 너를 헐뜯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도 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미리 말하고,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그들이 재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한명 한명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각자 받은 말씀이 다른데, 그 말씀으로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린 이것을 후대에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증인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